2021년(2020년분) 일간신문 유료부수 순위

순위	매체	순위	매체	순위	매체
1위	조선일보	6위	한국경제	11위	국민일보
2위	동아일보	7위	문화일보	12위	서울경제
3위	중앙일보	8위	스포츠동아	13위	전자신문
4위	매일경제	9위	스포츠서울	14위	영남일보
5위	농민신문	10위	스포츠조선	15위	어린이동아

※ 종편, 케이블 방송사업 겸영 25개 매체·농민신문은 주 3회 발간
※ 자료 : 한국ABC협회(www.kabc.or.kr)

또 스포츠신문 유료부수 1위 스포츠동아, 4년연속 해냈다

종합순위 9위서 8위로 한계단 상승…동아일보 2위 ABC협회 인증…어린이동아도 어린이신문 정상

스포츠동아가 올해 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겸영 매체 25개사에 대한 한국ABC(회장 이성준)의 유료 부수 인증 결과 스포츠신문 가운데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체 25개사 중에서도 지난해 9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종합 순위 8위에 올랐다.

ABC협회는 일간지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정기구독자, 가판 등에서 실제 판매된 부수)를 실사해 집계하는 국내 유일의 공인기관으로 2021년도(2020년 기준) 국내 매체 25개사의 유료 부수 인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스포츠동아는 유료부수 8만2352부로 4년 연속 스포츠신문 1위 자리를 지켰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이 그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의 유료부수는 70만5198부로 집계돼 전체 언론사 가운데 2위였다. 발행부수는 84만2100부로 집계됐다. 어린이동아의 유료부수는 4만8385부로 어린이신문 중 가장 높았다.

원정일 ABC협회 인증위원장은 "종이 매체의 부수 규모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줄어드는 추세지만 활자 매체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활자 매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전달력은 여전히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BC협회는 이번에 발표한 종편, 케이블 참여 매체 25개사 외에 나머지 전국 150여 개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조사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LPGA 메디힐 챔피언십' 명승부는 계속된다

10명이 4타 안 각축…3년연속 연장승부?

메디힐 챔피언십은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올해도 최종일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우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다 3라운드 18번 홀에서 더블보기를 하며 공동 6위까지 미끄러진 대니엘 강. 사진제공 | LPGA 메디힐 챔피언십

3R 대니엘 강 흔들·리민 단독선두 2타차 2위 2명, 3타차 4위도 2명 초대 챔피언 리디아고 연장 우승 김세영도 연장 18번홀서 우승 버디 매해 접전…또 연장 기적 쓸지 관심

올해로 3회째를 맞은 'LPGA 메디힐 챔피언십'의 우승자는 누가 될까.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일리시티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파72)에서 계속된 3라운드에선 대만 출신의 리민이 합계 9언더파 단독 선두에 올랐다. 이어 2타 차 공동 2위 2명, 3타 차 공동 4위 2명에 이어 신지은(29) 등 5명이 공동 6위(5언더파) 그룹을 형성했다.

1위부터 공동 6위 그룹까지 총 10명이 불과 4타 간격 안에 있다. 흔히 "골프는 장갑을 벗을 때까지 모른다"고 말하듯 누가 마지막 우승 영광을 차지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혼전 구도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매 라운드 선두 얼굴이 달랐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라운드 선두는 7언더파를 기록한 레오나 매과이어(아일랜드)였다. 2라운드 리더보드 최상단은 교포 대니엘 강(미국)의 차지였다. 대니엘 강은 3라운드 중반까지 1위 자리를 지키다 종반 들어 리민에게 추격을 허용한 뒤 18번(파5) 홀에서 더블보기로 한꺼번에 2타를 잃으며 공동 2위에서 공동 6위로 순식간에 4계단 미끄러졌다.

그린사이드 벙커에서 친 세 번째 샷이 그린을 훌쩍 넘어가 건물 외벽을 때린 뒤 도로에 떨어지면서 OB(아웃 오브 바운즈) 판정을 받았고, 결국 벙커로 다시 돌아가 5번째 샷을 해야 했다.

한국의 전문 화장품 기업 엘앤피코스메틱이 2018년부터 자사의 글로벌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을 타이틀로 내세워 개최하는 메디힐 챔피언십은 첫 해부터 불꽃 튀는 우승경쟁으로 주목을 끌었다.

2018년에는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이민지(호주)가 4라운드 정규라운드까지 12언더파 276타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고, 결국 연장 접전 끝에 리디아 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18번(파5) 홀에서 진행한 연장 승부에서 페어웨이에서 3번 우드로 날린 세컨샷이 그린 뒤 핀 60cm 거리에 붙으면서 이글을 잡고 버디에 그친 이민지를 따돌리고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2년 전 김세영(28)의 우승 과정도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다. 3라운드까지 3타 차 단독 선두를 달렸던 김세영은 최종 라운드에서 난조를 보이며 3타를 잃었다.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뒤 동타를 이룬 이정은6(25), 브론테 로우(잉글랜드)와 플레이오프를 치렀고, 18번(파5) 홀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까지 3회 연속 메디힐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머세드 골프클럽은 전장은 6551야드로 길지 않은 편이지만 페어웨이가 좁고 나무가 많은 데다 러프와 그린 컨디션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열리지 못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메디힐 챔피언십이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연이어 명승부가 펼쳐지는 이유다.

올해 최종 우승자 역시 연장 승부에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메디힐 챔피언십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3R 깜짝 선두 리민 "기록 의식하지 않을 것"

2015년 데뷔 후 우승 경험 없어 2부에선 꾸준…세계랭킹 276위

메디힐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 합계 9언더파 깜짝 선두에 오른 리민(대만·26)은 국내 팬들에게 이름조차 낯선 선수. 선두 등극이 다소 의외로 다가올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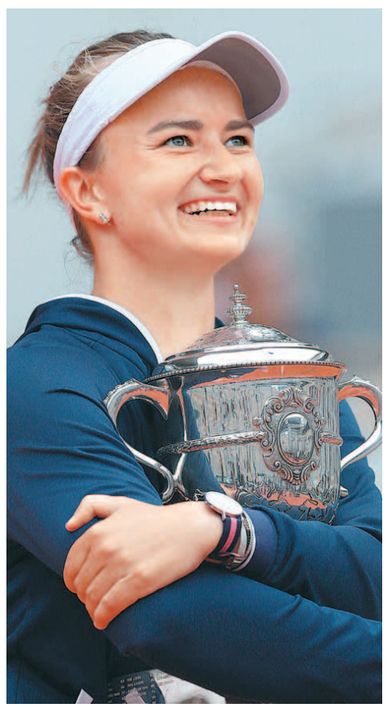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했지만 아직까지 우승 경험이 없다. 심지어 투어 데뷔 후 단 한번도 톱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동안 최고 성적은 2015년 US여자오픈에서 거둔 공동 12위. 메디힐 챔피언십에는 2018년 한번 출전했고 당시 컷 탈락의 아쉬움을 맛봤다. 올해는 4월 롯데챔피언십과 5월 퓨어실크 챔피언십, 두 대회에 나서 각각 컷 탈락과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리민 사진제공 | LPGA 메디힐 챔피언십

그러나 LPGA 2부투어인 시메트라 투어에선 꾸준히 성적을 내왔다. 2014년 시메트라 투어 신인왕 출신으로 지난 5월 말 끝난 미션 인 리조트&클럽 챔피언십에서 통산 3승을 달성했다. 만약 리민이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시메트라투어와 LPGA 투어에서 연속으로 우승한 첫 선수가 된다. 현재 그의 세계랭킹은 276위다.

리민은 3라운드 후 "코스가 어렵기 때문에 내 플레이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며 "기록을 의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가 13일(한국시간) 파리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벌어진 2021 프랑스오픈테니스 여자단식 결승에서 아나스타시야 파블류첸코바를 세트스코어 2-1로 누른 뒤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은 채 활짝 웃고 있다. 파리 | 신화뉴시스

'프랑스오픈 테니스 단식 우승' 크레이치코바 "별이 된 스승께 영광을"

'체코 전설' 노보트나 코치의 제자 '복식 킬러' 지우고 단식까지 정복

체코 테니스계에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체코·26·세계랭킹 33위)가 생애 첫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크레이치코바는 13일(한국시간) 파리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2021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아나스타시야 파블류첸코바(러시아·32위)를 세트스코어 2-1(6-1 2-6 6-4)로 꺾었다.

크레이치코바는 복식에서 호성적을 냈던 선수다. 2018년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에서 여자복식 우승을 거머쥐었고, 이 부문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선 단식 돌풍을 일으키며 조국 체코에 40년 만에 프랑스오픈 우승컵을 안겼다. 프랑스오픈 우승을 차지한 마지막 체코 선수는 1981년 한나 만드리코바다.

크레이치코바는 우승 후 특별한 소감을 전했다. 자신의 영원한 테니스 스승이자, 2017년 암 투병 끝에 49세를 일기로 별세한 체코 테니스의 전설 야나 노보트나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렸다. 그는 "노보트나 코치가 유언으로 '테니스를 즐기고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말문을 연 뒤 하늘을 가리키며 "노보트나 코치가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은 그가 나를 돌봐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코레이치코바는 18세 때 처음 노보트나와 만났다. 노보트나는 2017년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코치이자 멘토로 크레이치코바를 열정적으로 지도했다.

이번 우승이 체코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긴 또 다른 이유는 영웅들의 대를 이은 활약 때문이다. 크레이치코바의 스승인 노보트나는 1998년 윔블던 여자단식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당시 체코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노보트나의 스승이 바로 크레이치코바 이전 1981년 프랑스오픈을 제패한 만드리코바다. 만드리코바에 이어 노보트나, 이제는 크레이치코바가 그 배턴을 이어받아 체코 테니스계에 새로운 영웅으로 등장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